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매달 넷째 주는 성도의 교제 후 목장별로 말씀 나눔을 합니다.
4. 4월 5일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세례 교육이 3월 첫주부터 4 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박가은 / 설교번역: 강지연
- 3월 안내 및 봉사: 슬기로운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부활절 : 4월 5일

*성서일과 Lectionary (제 8주)

창 2:15-17, 3:1-7, 시 32, 롬 5:12-19, 마 4:1-11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 말씀 나눔 *

1.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most cherished treasure of your soul?
2. “You are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가 된다면 욕망을 바꾸고 재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높은 전망이나 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 또는 나보다 훨씬 귀한 가치와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와 연결하여 생각해 봅시다.)
Do you agree with the statement,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If so, how do you think one can change and readjust their desire?(Think about this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s that occur when you encounter a higher perspective, a world grander and more beautiful than yourself, or values far more precious than your own.)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사 53:5-6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강지연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야고보서 1장 12-18절 ————— 인도자

설교 ————— 속지 마십시오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별과 같이 빛나리

2016년 2월 21일 왼쪽 귀밑 침샘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살아 온 삶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상할까봐 라면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먹던 분홍색 두툼한 소시지도 건강에 좋지 않다길래 일부러 먹지 않았습니다. 불량식품과는 담을 쌓고 살아 온 삶인데, 떼어낸 종양이 암이라는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뭐든 감사히 먹고 즐겁게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겠구나 생각하며 가리지 않고 즐겁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덕에 수술 후 10년을 잘 버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갑상선저하증(Hypothyroidism)이라고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몇 년 전부터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디프레션이 심해지고 저녁에 그런 증상이 더 심해져서, 갑상선 약 용량을 높여야 하나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라는 처방을 내려주더군요. 생각해 보니 최근에 흐린 날이 많고 햇빛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정작 교회 사무실은 별이 드는 시간이 아예 없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다보니 일부러 햇볕을 쬐지 않으면 햇빛을 보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햇빛을 보충하기 위해 방에 설치하는 램프가 따로 있다고 그거라도 설치해 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글도 일부러 교회 1층에 동쪽 창문에 앉아 햇볕을 쬐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햇살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는지 새삼스레 느끼며 온 몸으로 그 빛을 맞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부한 일상은 일쭉 권태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깃든 영원의 빛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일상은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고, 쉬고, 먹고, 울고, 웃고, 자고, 달리고, 걷고, 앉아 있고 수다 떠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늘의 빛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허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빛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어 그들의 일상이 영혼의 빛이 깃든 작은 성소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들의 삶이 그래서 복되고 귀합니다. 희미할 망정 작은 빛을 도처에 비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는 그 작은 빛이 어둠에 지친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줄테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인 정진규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지극한 어둠 속에서도 작게나마 자기 할 일을 하라는 말이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장 3절).”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길 기도해 봅니다.